

신문서평의 성격과 경향 분석*
 -2001년 동아, 한국, 매일신문을 대상으로-
An Analysis on the Pattern of Book Reviews in the Daily Newspapers

김 상 호(Kim, Sang-Ho)**

〈 목 차 〉

- | | |
|--|--|
| I. 서언
II. 서평지면의 형식
1. 기사의 구성
2. 서지기술 및 일러스트레이션
III. 서평대상도서의 성격
1. 주제 및 유형 | 2. 출판사
IV. 신문서평의 특성
1. 중복성과 속보성
2. 서평자의 구성
V. 결언 |
|--|--|

초 록

본 연구는 주요 서평매체의 하나인 신문을 대상으로 그 서평의 성격과 경향을 분석한 것이다. 조사범위는 2001년 발행의 동아일보, 한국일보, 매일신문에 한정하였다. 연구결과 이들 신문서평은 일반적인 독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문학 및 교양서를 중심으로 지역에 관련된 도서, 또는 번역서를 비중있게 다루고 있으며, 공히 서평의 속보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각각의 신문은 서평지면의 크기에서 현격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으며, 이것이 결과적으로 서평의 건수, 서평자의 구성, 서평의 수준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 서평, 신문서평, 문헌비평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attern of book review in the daily newspaper. Literature and social science are relatively main subject area reviewed at the daily Donga, Hankuk, Mail. Each newspaper has different size of page that make much differences in quantity and quality of reviewed books, bookreviewers, and book reviews. Frequency of daily newspapers assure comparatively short timelag-intervals between publication date and review date.

Key Word : Book Review, Newspaper Bookreview

* 이 논문은 2001학년도 대구대학교 학술연구비지원에 의한 논문임.

**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Daegu University, sanghkim@daegu.ac.kr)

· 접수일 : 2002. 8. 16 · 최초심사일 : 2002. 8. 28 · 최종심사일 : 2002. 8. 28

I. 서 언

지난 2001년 한해동안 국내 출판사에서 발행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한 도서는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모두 34,279종에 달한다.¹⁾ 이는 일일 평균 100종에 가까운 양으로 일반인이 신간정보의 최신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그 필요성의 논란을 떠나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신문은 일반인이 일상적인 정보를 획득하는 주요 매체 가운데 하나이다. 특히 출판, 신간정보의 입수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국내 주요 일간지들은 최소한 주간 단위로 여러 주제의 문헌정보를 신속히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한국출판연구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이 도서를 선택함에 있어 신문잡지의 기사 및 서평에 의존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문학도서는 18%, 교양서는 12%, 실용 및 취미도서는 9%를 상회하고 있다.²⁾ 다른 어느 정보원 보다 높은 비율이다.

90년대 들어 일반 독자의 정보요구가 다양화 전문화되자 국내 일간지들은 지면을 대폭 늘리고, 기사의 주제를 보다 세분하여 심층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섹션신문의 등장이라고도 볼 수 있다. 지면이 확장되면서 광고지면도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서평을 비롯해 책에 관한 기사를 실을 공간도 더불어 여유로워졌다는 점이다.

전통적으로 신문은 같은 인쇄매체인 책에 관한 정보와 기사를 꾸준히 담아왔으며, 출판물광고에 있어 최적의 매체로 기능하였다. 하지만 과거 신문의 문화지면은 그것을 수용하기에 충분하지 못했으며, 해당 기사는 다분히 형식적으로 다루어졌었다.

충분한 지면의 확보가 보다 다양하고 심층적인 출판정보의 제공, 독자의 교양증진, 학술 및 문화발전의 촉매제로 작용하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것을 주도해나갈 주체인 일선 기자들은 늘어난 지면을 메꾸고, 기사의 주목률을 높이기 위해 더욱 분주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국내 신문들이 문자보다는 다채로운 레이아웃, 일러스트레이션의 채택에 비중을 두고 서평지면을 편집하고 있는 것도 독자의 주목률을 의식한 결과이다.

서평은 신간에 관한 구체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이다. 서평을 통해 독자들은 정보의 요구, 지적 호기심을 채우고, 분별력을 기르게 된다. 오늘날 서평은 신문이나 잡지의 인쇄매체가 아닌 인터넷을 통해서도 접근 가능하다. 하지만 아직 그것은 신뢰성에서 문제가 적지 않다.

물론 일찍이 헤인즈가 지적한 바와 같이 신문서평 역시 질적으로 수준이 높은 것은 아니다.³⁾ 그러한 평가를 받는 것은 서평을 담당하는 기자의 자질도 한 원인이겠지만, 무엇

1) http://kpa21.co.kr/home71_2001.htm

2) 한국출판연구소, 『2000국민독서실태조사』. 서울 : 한국출판연구소, 2000. p. 76.

3) Helen E Haines, *Living with Books*.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0. p. 101.

보다 신문매체의 속보성에 기인하는 바이다.

세계적으로 권위있고 저명한 서평지에는 몇몇 신문이 포함되어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New York Times의 일요판 Book Review 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조만간 그러한 형태로 발전하는 신문들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헌정보학의 관점에서 서평에 대한 접근이 부족한 것이 국내 현실이다. 본 연구는 국내 신문서평의 위상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신문서평의 성격과 경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가 신문서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신문서평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하나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국내 신문서평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는 지난 수십년간 발행된 수십종의 중앙 및 지방의 일간지를 분석해야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동아일보와 한국일보, 매일신문의 3종으로 그 대상을 한정하였다. 이들 신문을 선택한 것은 해당 신문이 국내 중앙지와 지방지, 그리고 중앙지 내에서 서평지면이 충분한 예와 보통인 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서평의 범위는 동아일보의 경우 “책의 향기”, 한국일보의 경우 “책과 세상”, “문학”, 매일신문의 경우 “책과 함께”, “북스”, “문화”, “학술” 지면에 2001년 한해동안 게재된 기사로 한정하되, 대담이나 회고, 취재형식의 기사, 400자 이하의 기사는 그 대상에서 제외함을 밝혀둔다.

II. 서평지면의 형식

1. 기사의 구성

국내 신문에서 서평을 비롯한 신간소개 및 출판 관련기사들은 과거 문화면 일부를 장식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지면을 배정하고, 다양한 내용과 형태로서 관련기사들을 구성하고 있다.

먼저 동아일보는 매주 토요일에 8면에 달하는 “책의 향기”라는 전문섹션의 이름으로 서평 및 신간 기사를 담아내고 있다. 다양한 독자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여러 가지 다채로운 형식으로 출판 관련정보를 제공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1단에서 6단에 이르는 각종 서평 이외에도 “새로 나온 책”, “출판가”, “새책 나왔네” 등과 같은 신간기사, 그리고 저작자와의 대담을 통해 작성한 “저자(역자)는 말한다”, 저명한 인사들이 말하는 “내가 요즘 읽는 책”, 독자들의 독서감상문 투고로 만들어지는 “이렇게 읽었다” 등이 함께 지면을 메꾸고 있다. 그 밖에 월요일자 문화면에 간혹 신간 기사, 만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3권 제3호)

화 게임면에 신간만화 기사 등이 소개되기도 하지만 일정치는 않다.

한국일보는 매주 금요일에 2면 분량의 “책과 세상 BOOK & LIFE”의 전문섹션을 발행한다. 여기에는 서평 이외에 신간소개코너 “읽어보세요”, “새로 나온 책”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에는 문학면에 서평, 그리고 작가와의 대담기사가 자주 게재된다. 3월 20일부터는 “문학 어린이 책”으로 지면이름이 바뀌기도 하였는데, 그렇다고 해서 “책과 세상” 섹션에서 어린이 책이 빠진 것도 아니다.

그 밖에 목요일 문화종합면의 “학술신간” 코너, 토요일 문화종합면, 종교 학술면의 취재기사형식의 출판 관련기사, 월요일 방송만화면의 “새 만화” 등이 서평 및 신간소개와 관련해 의미가 있다.

매일신문의 경우에는 매주 화요일에 2면 분량의 “책과 함께”(3월 27일부터는 “북스(Books)”로 개명)의 전문지면이 발행된다. 대개 2, 3편의 서평과 더불어 “화제의 책”, “새 책”, “신간다이제스트”, “북리뷰”, “지역출판가”, 그리고 지역의 저자와의 대담기사인 “차한잔” 등의 코너가 함께 지면에 실린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에는 문화, 학술면을 빌어 지역과 관련이 깊은 도서의 서평이나 대담 및 취재기사형식의 기사들이 다수 게재되며, 금요일에는 종교면에 종교서적들이 간간히 소개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여러 지면에 다양한 크기와 형식으로 작성되는 기사 가운데에서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되는 서평을 선별하여 신문별, 월별로 구분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신문별, 월별 서평 건수

월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동아	68	65	84	65	75	80	69	67	65	67	56	70	831
한국	41	45	53	49	43	45	38	39	48	45	47	43	536
매일	26	27	27	18	27	21	33	17	22	23	22	14	277

2001년 한해 동안 동아, 한국, 매일신문에 실린 서평은 모두 1,644건에 달한다. 그 내용 및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평 건수는 동아, 한국, 매일신문의 순서로 많다. 이는 해당 신문의 서평지면의 크기와 관련이 깊다. 문학, 문화, 학술 등 관련지면을 포함하면 매주 서평이 게재될 수 있는 분량은 동아일보 6면, 한국일보 4면, 매일신문 3면 정도이다.

둘째, 서평은 1단부터 6단까지 그 크기가 비교적 다양하다. 하지만 서평이 일반적인 형식의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3단 이상은 되어야 한다. 지면을 대표하는 주 서평은 대개 5단이나 6단으로 작성된다. 하단의 출판광고나 신간소개코너 등을 제하면 한 지면에

보통 2, 3건의 서평을 실을 수 있다.

셋째, 서평건수를 월별로 살펴보면, 한달 평균 동아일보는 69건, 한국일보는 45건, 매일신문은 23건의 서평이 게재되었다. 서평건수는 월별 계절별로 큰 차이는 없지만, 휴가철인 8월에는 한국일보와 매일신문의 서평건수가 상대적으로 적다.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에는 동아일보와 한국일보의 경우 가장 많은 서평건수를 기록하고 있고, 매일신문의 경우 두 번째로 많은 서평건수를 보이고 있는 점으로 보아 계절성이 다소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서지기술 및 일러스트레이션

국내 각 신문들이 서평을 게재함에 있어서 대상도서의 서지사항을 기술하는 방식은 제각각이다. 형식이 어떠한지 독자들이 필요로 하는 서지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기사에서 충분히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

먼저 동아일보의 경우는 서평대상도서의 저자, 서명, 출판사와 같은 기본적인 사항을 비롯해 쪽수, 가격, 그리고 서평자에 관한 정보 등을 다른 신문에 비해 충실하고 일관되게 기술하고 있는 편이다.

한국일보는 기본적인 서지사항까지 다소 소홀히 다루고 있는데, 역자명, 출판사명이 누락된 11월 23일자 『베이징이야기』 서평이 그 단적인 예이다. 다만 연말부터는 가격정보까지도 기재하는 등 그 형식은 점차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매일신문은 서평의 다른 어느 측면 보다도 서지사항에 있어서는 그 기술이 충실한 편이다. 하지만 저자가 아닌 역자와 출판사를 저자항목에 기술한 3월 13일자 서평에서와 같이 간혹 의외의 오류가 보이기도 한다. 기본을 보다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

번역서에 대한 서평으로 한정할 때, 역자에 관한 기술은 세 개의 신문 모두가 한결같지 못하다. 이는 서평담당기자들이 저작자로서 역자의 역할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실제 번역서를 대상으로 한 서평에서 역자명이 서평 어디에도 기재되지 않은 예는 동아일보의 경우 전체 번역서 서평 429건 가운데 80건, 한국일보의 경우 213건 가운데 107건, 매일신문의 경우 84건 가운데 26건에 이른다. 한국일보는 번역서의 서평 중에서 역자에 관한 기술이 절반정도 누락된 셈인데, 다른 신문서평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많다. 이러한 서지사항의 기술은 비단 신문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서평담당자의 개인차에 의해서도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주제별로 보면 역자에 관한 기술은 경제경영학분야에서 특히 소홀한 편이다. 이는 실용성을 강조하는 학문의 성격과도 관련이 있다. 상대적으로 명분과 형식을 중시하는 역사와 철학분야에서는 역자의 기술이 충실하다.

문제는 한국일보의 경우 특히 문학류에 서평이 집중되어 있고, 외국의 문학작품 또한 상당한데, 그 번역을 담당한 사람들의 역할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번역은 또 다른 창작행위이다. 문학작품에서 역자의 개인적 능력은 다른 어느 주제나 유형의 도서에서 보다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자의 기술을 소홀히 했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동아, 한국, 매일신문을 조사한 결과 이들 신문서평에서 서지기술의 형식을 지키지 않는 몇 가지 이유는 첫째, 서평 및 편집기자의 인식결여, 둘째, 편집레이아웃의 실패, 셋째, 취재기사스타일의 의도 등으로 요약된다.

일러스트레이션은 문자로 작성된 기사의 이해를 돕고, 남은 여백을 채우며, 시각적 아름다움을 제공하고,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다. 신문서평에 있어서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특히 주목률이 낮은 지면에서 독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다양한 그림원고의 채택, 다채로운 레이아웃이 필요하다.

어쩌면 서평지면이 충분하다고 해서 서평건수가 늘어나고, 그 내용이 충분히 분석적으로 심도있게 다루어진다고 보다는 더 크고 많은 수의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서평기사가 장식될 뿐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을 정도이다.

지면의 여유가 많은 동아일보에서 그러한 경향을 쉽게 살펴볼 수 있다. 지면이 적은 매일신문의 경우 서평대상도서의 표지를 각 서평기사에서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등 그림원고의 채택, 레이아웃의 기법에서 비교적 단순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지면구성은 시행착오를 통해 점점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서평에서 그림원고는 대상도서의 표지 외에 저작자의 인물사진, 책 속의 삽화, 별도의 그래픽, 외부 저명 서평자의 인물사진 등이다. 『이븐 바투타 여행기』에서와 같이 저명한 역자의 경우에는 그의 인물사진이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채택되기도 한다. 어느 매체 보다도 신문은 넓은 지면에서 여유를 가지고 다양하게 레이아웃할 수 있는 강점을 지닌 서평 매체임이 분명하다.

Ⅲ. 서평대상도서의 성격

1. 주제 및 유형

전체 서평 1,644건에서 아동도서와 잡지, 해외도서에 대한 서평, 그리고 일괄서평을 제외하고, 그 대상도서가 국립중앙도서관에 분류 소장되어 있는 것을 주제별로 구분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주제별 서평건수

주제	총류	철학	종교	사회	순수	기술	예술	어학	문학	역사	계
동아	15	45	15	175	23	19	43	3	134	61	533
한국	5	26	14	92	15	9	29	2	169	35	396
매일	5	23	10	46	9	3	17	5	41	27	186
계	25	94	39	313	47	31	89	10	344	123	1,115
비율	2	8	3	28	4	3	8	1	31	11	100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 분류되어 검색 가능한 도서는 모두 1,115건이다. 주제별 서평건수를 보면, 동아일보는 사회과학, 문학, 역사, 예술, 철학의 순서로 그 수가 많고, 한국일보의 문학, 사회과학, 역사, 예술, 철학의 순서이며, 매일신문은 사회과학, 문학, 역사, 철학, 예술의 순서이다.

신문별로 서로 대동소이한 가운데 국내 서평전문지의 그것과 비교하더라도 주제별 경향에서 큰 차이가 없다.⁴⁾ 상대적으로 한국일보의 신문서평에서 문학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해당 신문이 별도의 문학면에서 여러 문학서들을 비중있게 다루었기 때문이다.

주제별 서평비율을 주제별 출판종수와 비교하기 위해 2001년도에 국내 출판사에서 발행되어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된 통계를 살펴보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주제별 출판종수

구분	총류	철학	종교	사회	순수	기술	예술	어학	문학	역사	계
종수	360	527	1,351	4,168	419	3,619	1,113	1,561	4,804	811	18,733
비율	2	3	7	22	2	19	6	8	26	4	100

위의 표에서 나타난 비율을 신문서평의 주제별 비율과 비교해보면, 출판에 비해 서평의 비율이 높은 주제는 역사, 철학, 순수과학, 예술, 사회과학, 문학의 순서이고, 반대로 서평의 비율이 낮은 주제는 어학, 기술과학, 종교의 순서임을 확인할 수 있다.

주제를 보다 세분하여 보면, 2001년 출판종수는 한국문학 3,218종, 전기 전자공학 1,877종, 경제학 1,731종, 기독교 1,170종, 영어 874종, 교육학 706종, 영문학 698종, 법학 592종, 의학 493종, 음악 400종, 아시아역사 350종, 사회학 345종 등의 순으로 많다.

4) 김상호, “문헌비평을 위한 서평의 분석적 고찰”, 《한국비블리아》 7집(1994) p. 249.

그런데 각 신문별로 서평건수가 많은 상위 5개의 주제와 그 건수를 살펴보면, 동아일보는 경제학 80건, 한국문학 66건, 사회학 46건, 아시아역사 27건, 불란서문학 20건의 순으로 많고, 한국일보는 한국문학 115건, 사회학 29건, 경제학 28건, 정치학 16건, 아시아역사 및 불란서문학이 각 13건의 순이며, 매일신문은 한국문학 31건, 사회학 15건, 아시아역사 14건, 경제학 13건, 동양철학 10건의 순이다.

이를 통해 보면 첫째, 전기 전자공학이나, 기독교, 영어, 교육학, 영문학, 법학, 의학, 음악의 서평비율이 사회학, 아시아역사, 정치학, 동양철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결과는 주제별 출판종수 보다는 독자들의 독서선호도가 서평대상도서의 선정에 있어 더 큰 결정 요인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 신문별로 주제의 선호도가 자못 다르게 나타난다. 동아일보의 경우 경제학이 15%정도로 그 비중이 가장 높고, 한국일보는 서평의 29%를 차지할 정도로 한국문학의 비중이 높다. 특히 매일신문의 경우에는 타 신문에서 서평건수가 많은 불란서문학이 1건에 불과한 반면, 동양철학은 10건으로 상대적으로 많은데, 이는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지방지의 지역성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분야에서와 같이 서평 분야에서도 자연스럽게 노출되고 있다. 매일신문에서 서평의 대상도서가 지역과 관련된 주제이거나, 지역에서 발행된 것이거나, 지역출신 및 지역에서 활동하는 인사의 저작인 경우는 모두 68건에 이른다. 관련 지면에서 지역출판에 관한 기사가 서평 이외의 형식으로도 비교적 상세히 보도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하면 68건의 서평건수는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다.

지방지가 서평지면에 지역 주민의 관심을 반영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는 지역문화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현상이다. 다만 지역의 인적 자원이 한정되어 있어서 서평대상도서가 교양서 보다는 지역 대학교수들이 저술한 학술서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학술서는 일반적인 독자들의 관심과는 거리가 있다.

신문서평 가운데 번역서가 차지하는 비중은 동아일보가 429건으로 52%, 한국일보 213건으로 38%, 매일신문 84건으로 30%정도이다. 2001년도 국내 번역서의 발행이 만화를 제외하고 5,413종으로 22%에 달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들 신문에서 번역서의 서평비율은 전체적으로 국내 저작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특히 다른 두 신문에 비해 동아일보의 번역서 비중이 매우 높은데, 이는 첫째, 이미 주제별로 살펴본 바와 동아일보의 서평이 사회과학도서에 집중되어 있고, 둘째, 자문위원이 학자들로 구성된 사실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겠다.

동아일보는 번역서의 비중있는 소개에 그치지 않고, 파리, 보스턴, 도쿄 등지에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인원을 빌어 그들이 송고한 해외 신간들의 서평을 고정적으로 게재하고 있다. 해외문화와 학술을 국내에 알리기 위한 일환의 이러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만 하다.

신문서평이 신문별로 색깔을 가지고 도서를 선정하고, 고유의 형식으로 관련정보와 지식을 제공한다면 독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할 뿐 아니라, 나아가 독서를 진작하고, 국내 저작 및 출판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같은 주제나 같은 저자의 여러 저작을 한데 서평한 것을 일괄서평이라고 한다. 이는 개개 저작의 가치를 열거하기 보다는 특정한 문제나 저자에 관한 서로 다른 이론이나 의견, 동향, 작품세계를 독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형식이다.

조사대상 서평 가운데 동아일보에서 30건, 한국일보에서 29건, 매일신문에서 38건이 이에 해당한다. 전체 서평건수에서 동아와 한국일보가 4, 5% 정도인데 반해 매일신문은 14%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주제 및 유형을 보면, 동아일보에서는 아동도서가 11건으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한국일보와 매일신문은 문학이 각각 1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대체로 같은 유형의 저작들이 비슷한 시기에 출간된 사실을 하나의 주목할만한 사회적 현상으로 간주하고 기사화한 것들이다. 다만 매일신문의 있어서 일괄서평은 제한된 지면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형식을 자주 사용했다는 점에서 중앙지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2. 출판사

국내 출판사 가운데 2001년 한해동안 신간을 발행한 출판사는 모두 1,549개사이다. 반면 실적이 전혀 없는 출판사는 그 열배에 가까운 15,252개사를 기록했다. 실적 출판사 가운데에는 100종 이상을 발행한 출판사가 59개사에 달하며, 그 가운데에는 1,000종 이상을 발행한 출판사도 3개사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발행실적이 있는 1,549개의 출판사수는 동아, 한국, 매일신문의 전체 서평건수 1,644건과 큰 차이가 없는 수치이다. 이러한 사실은 이들 신문을 통해 자사 출판물의 서평이 게재된 출판사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음을 의미한다.

신문서평은 출판사나 저작자가 자기 출판물을 홍보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보낸 서평용 증정본을 바탕으로 작성된다. 한정된 신문의 지면은 이미 증정본을 보내온 출판사의 신간 조차 도저히 수용할 수 없을 정도이다.

모든 출판사들이 신문이라는 매체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독자에게 자사의 발행사실을 주지시키고자 하지는 않는다. 대상독자가 한정되어 있는 학술서, 전문기술서, 대학교재 등은 문학이나 역사, 사회과학의 교양도서에 비해 신문서평의 요구가 크지 않다.

결국 신문서평의 건수에서 상위를 점하는 출판사는 대중적인 교양서를 전문적으로 발행하고, 꾸준히 신문사에 서평용 증정본을 발송하며, 서평담당기자들이 기꺼이 독자들에게 일독을 권할만한 양서목록을 구축하고 있는 출판사라고 정의할 수 있다.

동아, 한국, 매일신문에서 많은 건수의 서평이 게재된 상위 27개 출판사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출판사별 서평건수

순위	출판사	동아일보	한국일보	매일신문	계
1	김영사	19	16	11	46
2	문학과지성사	17	22	5	44
3	창작과비평사	15	22	2	39
4	문학동네	10	23	4	37
4	민음사	15	19	3	37
6	한길사	11	11	12	34
7	생각의나무	11	9	6	26
8	사이언스북스	10	11	4	25
9	웅진닷컴	14	7	3	24
10	아카넷	9	8	1	18
11	문학세계사	7	8		15
11	현암사	7	6	2	15
13	황금가지	10	4		14
13	이후	8	4	2	14
13	들녘	6	5	3	14
13	동아일보사	12		2	14
17	효형	6	4	3	13
18	나남	8	4		12
19	비룡소	8	3		11
19	세종서적	9	2		11
19	해냄	8	3		11
19	푸른숲	3	6	1	10
22	푸른역사	2	4	4	10
22	지식산업사	3	5	2	10
22	이레	6	3	1	10
22	삼인	5	2	3	10
22	궁리	5	3	2	10

위와 같은 상위 27개사에서 발행한 도서의 서평은 총 534건이다. 일괄서평을 제외한 전체 서평의 1/3을 상회하는 수치이다. 이들 출판사는 대부분 대형의 학습참고서나 아동도

서, 또는 대학교재나 학술서를 전문적으로 발행하는 출판사라기 보다는 문학 및 교양서 전문출판사들이다.

각 신문별로 상위 출판사를 살펴보면, 동아일보의 경우는 김영사가 가장 순위가 높고, 다른 신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사 및 아동도서출판사의 서평건수가 많다. 반면 한국일보는 문학동네의 순위가 가장 높고, 상대적으로 다른 문학서 전문출판사의 서평건수가 많다. 동아일보사 발행도서에 대해서는 한 건의 서평도 기록하고 있지 않다.

매일신문은 한길사 발행도서의 서평건수가 가장 많으며, 교양서 전문출판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그런데 매일신문에서는 동아일보나 한국일보에서 비중있게 서평되고 있는 일부 중견 출판사목록을 찾아볼 수 없다. 지방 신문사에 그들의 출판물을 발송하지 않은 데 따른 현상으로 파악된다. 표에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대구 소재 출판사의 서평비중은 중앙지에 비해 높은 편이다.

서평매체로서 신문은 해당 지면에 출판물의 광고도 함께 수록하고 있다. 어쩌면 광고를 실은 출판사들에 대한 배려가 서평대상도서를 선정하는데 작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다른 출판사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하지 않고, 독자들이 서평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간 조심하지 않으면 안된다.

예를 들자면 동아일보 2월 3일자에 서평된 『그대 스스로를 고용하라』, 『끝빠이 이상』과 같은 책은 다음 주 2월 10일자 서평지면에 광고되고 있으며, 이미 2월 10일에 광고된 『브라스밴드』는 일주일 뒤에 서평이 게재되었다. 특히 3월 31일자 동아일보에는 『고목탄』의 서평 및 광고가 한 지면에 같이 실리고 있다. 신문매체의 상업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같은 맥락에서 해당 신문과 연고가 있는 특정 단체나 개인의 출판물에 대한 서평도 서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삼가해야 할 부분이다. 국내 일간지들이 자사의 출판물을 우선적으로 서평하고, 고정칼럼니스트의 저술을 서평 게재한 것은 그 저작의 가치를 떠나 바람직하지 않다.

IV. 신문서평의 특성

1. 중복성과 속보성

시간도서 가운데에는 동아일보나 한국일보, 또는 매일신문에서 중복되게 서평되는 것이 있다. 다수의 신문에서 중복 서평될수록 해당 도서의 대중적 문헌적 가치는 더욱 큰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신문서평이 지닌 가장 큰 장점의 하나는 속보성을 지닌다는 점이다. 월간지, 계간지 형태의 잡지서평은 아무래도 일간지 보다 간행주기가 길기 때문에 속보성에서는 취약할 수밖에 없다. 신문 간 속보성은 중복 서평된 도서를 통해 비교해볼 수 있다.

2001년 한해동안 동아, 한국, 매일신문에 모두 서평이 게재된 도서는 35종에 달한다. 그것의 서명과 서평게재일을 동아, 한국, 매일신문의 순서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아름답다 (1/20-1/19-1/23)
2. 한국의 지성 100년 (1/27-2/2-2/5)
3. 브라스밴드를 기다리며 (2/17-2/13-2/19)
4. 중국유맹사 (2/17-2/16-2/19)
5. 프랑스문화예술, 악의 꽃에서 샤넬 No.5까지 (3/3-3/9-3/6)
6. 아량은 왜 (2/17-2/20-3/7)
7. 아주 사소한 중독 (3/17-3/6-3/7)
8. 호메로스에서 돈키호테까지 (3/17-3/16-3/20)
9. 화인열전 (3/31-3/30-4/10)
10. 소비의 미래 (4/7-4/6-4/17)
11. 아름다운 지상의 책 한 권 (5/5-5/4-5/7)
12. 온 세상은 한송이 꽃 (4/28-5/4-5/8)
13. 네 번째 불연속 (5/5-5/4-5/8)
14. 고희의 증명 (5/19-5/18-5/23)
15. 소유의 종말 (5/26-5/25-5/28)
16. 디즈니 순수함과 거짓말 (6/16-6/15-6/19)
17. 손님 (6/2-6/5-6/20)
18. 우렁이 속 같은 세상 (6/30-6/29-7/3)
19. 얼굴의 역사 (7/7-7/6-7/17)
20. 천개의 고원 (7/21-7/20-7/23)
21. 거울 (7/14-7/13-7/24)
22. 조선 막사발 천년의 비밀 (9/1-8/31-9/4)
23. 이븐 바투타 여행기 (9/22-9/21-10/9)
24. 르네상스를 만든 사람들 (10/6-9/28-10/9)
25. 문화가 중요하다 (10/6-10/5-10/16)
26. 불량국가 (10/20-10/19-10/23)
27. 욕망 광고 소비의 문화사 (10/27-10/26-10/30)
28. 끝없는 도전과 용기 (10/20-10/26-10/30)

29. 사랑을 선택하는 특별한 기준 (10/27-10/30-11/6)
30. 대통령께 보내는 메모 (11/10-11/9-11/13)
31. 부유한 노예 (11/10-11/9-11/23)
32. 도전받는 오리엔탈리즘 (11/24-11/23-11/27)
33. 인간의 그늘에서 (11/24-11/23-11/27)
34. 서양과 동양이 127일간 e-mail을 주고 받다 (12/1-11/30-12/4)
35. 에필로그 (12/15-12/14-12/18)

이들 35종의 도서목록은 일반 독자의 관심을 끌만한 교양서가 그 주를 이룬다. 타 신문과 서평도서가 중복되어 나타나는 비율은 기본적으로 해당 신문의 전체 서평건수에 따라 좌우된다. 조사범위를 확대하면 서평대상도서의 선정기준이 특별한 신문은 상대적으로 중복비율이 낮게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전체 서평건수에서 큰 차이가 있는 소수의 동아, 한국, 매일신문을 통해서 그러한 비교 분석은 무의미하다.

단순히 중복 서평된 도서를 통해 동아, 한국, 매일신문 간의 상대적인 속보성 만을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35종의 중복 도서 가운데 한국일보에서 가장 먼저 서평이 게재된 도서가 28종이고, 동아일보에서 먼저 서평된 도서는 7종이다. 매일신문의 경우는 전무하다.

둘째, 서평이 게재된 일자를 비교해보면,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한국일보의 서평게재일이 동아일보의 그것보다 하루 앞서고, 매일신문의 서평게재일은 동아일보에 비해 삼일이 늦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근본적으로 단지 동아일보의 서평지면이 발행되는 날이 토요일이고, 한국일보는 금요일이며, 매일신문은 화요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며칠 간의 차이는 속보성을 판단하는 데 그 의미를 크게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독자가 신문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칠 만큼의 차이는 아니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 독자의 요구를 수용하기에 적절한 수준의 서평건수는 얼마이고, 효과적인 서평지면의 발행 요일은 언제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더 흥미로울 것 같다.

다음으로 동아일보나 한국일보, 또는 매일신문 가운데 두 개의 신문에서 중복 서평된 도서의 예를 살펴보면, 동아일보와 한국일보에서 중복 서평된 도서는 모두 188종, 동아일보와 매일신문에서 중복 서평된 도서는 모두 94종, 한국일보와 매일신문에서 중복 서평된 도서는 모두 57종으로 나타난다.

매일신문 서평도서의 중복도가 상대적으로 한국일보 보다는 동아일보에서 더 높다. 앞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근본적으로 동아일보와 한국일보 서평건수의 크기에 따른 것이겠지만, 한편으로 매일신문의 서평대상도서 선정과정에서 동아일보의 서평사실이 상대적으로 더 참고된 결과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동아일보 3월 3일자 서평도서 『프랑스문화예술』, 『나치의 자식들』, 『서가에 꽃힌

책』이 3월 6일자 매일신문에서 나란히 중복 서평되고, 동아일보 11월 17일자에 일괄서평된 도서들이 11월 19일자 매일신문에서 기사스타일로 일괄서평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례는 한국일보와 매일신문 사이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매일신문에서 중복 서평된 도서 가운데 일괄서평의 형태로 기술되고 있는 것은 모두 21종으로 중앙지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면과 인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가능한한 다수의 우량도서들을 독자에게 주지시키려는 의도와 노력의 결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 하다.

신문서평의 객관적인 속보성은 서평도서의 발행일로부터 서평게재일까지의 소요시간, 즉 타임래그를 조사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2001년 9월 한달동안 동아, 한국, 매일신문에 소개된 서평도서 가운데 대구대학교 도서관에서 발행일자를 확인한 54종의 타임래그는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신문별 타임래그의 분포

일수	-7 이내	0	1	2	3	4	5	6	7	8-10	11- 14	15- 30	30 이상	계
동아	1	2		2	3		3		3	2	2	4	1	23
한국	2		2		1	2	1	1	1	3	2	2	1	18
매일			1		1	2	1			1	5	1	1	13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신문서평의 타임래그는 불과 1주일정도에 불과하다. 이는 신간이 발행되고 나서 신문사에 증정본이 배송되고, 서평팀에서 도서들을 검토하여 대상도서를 선정하고, 서평 기사를 작성 편집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한다면 산술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물론 정식 발행에 앞서 출판사들이 서평용 증정본을 여러 신문사에 미리 발송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다만 정식 발행일자 전에 서평이 게재된 사실은 도서의 발행일자가 신뢰할만한 것이 못됨을 반증한다. 도서의 인쇄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그 결과와 해석은 마찬가지이다.

간혹 타임래그가 1달 이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해당 서평이 신간의 안내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대개는 고정칼럼니스트가 양서를 대상으로 분석 비평한 것이거나, 사회환경의 변화로 과거에 발행된 도서가 새롭게 주목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실제 2001년 9월에는 미국에서의 테러사건으로 이미 발행된 책 가운데 이슬람문화, 미국의 군사외교정책에 관한 것들이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신문별로 타임래그를 비교해보면, 지방지가 중앙지에 비해 2, 3일 정도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평지면의 게재요일, 우편물의 배송 소요시간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국내 신문은 매주 100여종에 육박하는 증정본들 가운데에서 어떤 책을 선정해 무난하게 서평하느냐가 속보성이나 질적으로 우수한 서평기사의 작성보다 더 중요한 일로 간주되고 있다. 이는 동아일보, 매일신문의 연말 서평지면에 실린 “책을 고르고 나서”에서 서평담당기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바이기도 하다.

2. 서평자의 구성

신문서평의 작성자는 일차적으로 신문사 내부 인원과 외부 인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다시 내부 인원은 서평담당기자와 일반기자, 외부 인원은 전문서평인과 일반서평인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전문서평인이란 해당 신문의 서평자문위원으로 정식 위촉되거나 고정칼럼니스트로 지정된 자를 포함한다. 일반서평인은 일회성의 서평자들이다.

서평담당기자가 반드시 신문서평을 직접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의 일차적 책무는 관련지면을 채울 원고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일이다. 국내 전문서평지나 외국의 주요 신문에서 기자가 서평을 직접 작성한 예는 그리 많지 않다.⁵⁾

하지만 국내 신문매체에서 서평은 담당기자들이 직접 작성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다. 신문사에서 수월성을 우선시하고, 서평의 권위 유지에 큰 부담을 갖지 않는 결과로 판단된다. 서평작성능력을 지닌 기자들의 양성과 그들의 적극적인 활동은 물론 바람직하다. 문제는 전적으로 기자들에게 서평기사의 작성을 부담시키는 시스템이다.

신문별로 서평자의 구성 비율을 감안해 서평담당기자는 개인별로 그리고 외부 인원은 자문위원과 각 직업별로 구분하고, 다수의 서평을 작성한 순위를 살펴 보면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개인 및 서평자그룹별 서평건수

순 위	1	2	3	4	5	6	7	8	9	10
동 아	교 수 155	H기자 86	J기자 66	C기자 59	자 문 46	K기자 45	작 가 42	B기자 41	P기자 41	주 부 34
한 국	O기자 139	Y기자 130	M기자 61	H기자 60	C기자 41	무 38	S위원 20	W기자 20	N기자 6	U기자 5
매 일	R기자 67	C기자 62	무 49	S기자 36	D기자 20	K기자 10	G기자 10	L기자 9	H기자 6	교 수 6

위의 표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한국일보와 매일신문은 서평 대부분이 서평담당기자

5) 김상호, “문헌비평을 위한 서평의 분석적 고찰” p. 7.

에 의해 작성된 반면, 동아일보의 경우에는 서평자문위원 및 교수, 작가, 주부, 연구원 (33건으로 11순위)에 의해 상당량이 작성되고 있다. 이러한 외부 인원에 의한 서평은 모두 276건으로 상위 4명의 기자가 한해동안 작성한 것보다 많다.

외부 인원을 통한 서평기사의 작성이 속보성을 요하는 신문매체의 속성 상 용이하지 않은 일임을 고려할 때, 동아일보에서의 서평자 구성비는 긍정적으로 평가할만 하다. 주제분야 전문가는 물론, 해외인력, 주부 등을 적재적소에 안배하고, 고정칼럼을 적절히 활용하여 서평의 현장감과 권위를 살리고 있다.

다만 11명의 외부 서평자문위원 가운데 주제별로 예술분야의 인사가 제외된 것이 다소 아쉬운 대목이며, 덧붙여 도서관 현장의 노련한 사서집단을 외부 서평가그룹에 합류시킬 필요가 있음을 밝혀둔다. 문헌전문가로서 그들의 경험과 지식, 시각과 해석은 독자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며, 나아가 부족한 인적 자원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서평담당기자 개개인의 활동기간을 체크해보면 그들의 자리이동이 비교적 잦은 것으로 나타난다. 동아일보의 경우 1년간 꾸준히 서평기사를 작성한 기자는 86건의 H기자, 59건의 C기자, 41건의 B기자 3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8명의 기자는 개인별로 서평기사를 실은 시기와 기간에 큰 차이가 있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일보나 매일신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일보의 경우 타 신문에 비해 서평담당기자들의 기사작성 부담이 과중한 편이다. 한국일보의 O기자, Y기자는 일년동안 다른 출판관련기사들을 작성하는 한편, 130건 이상의 서평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적으로 주당 2, 3건의 서평을 작성한 셈이다.

우수한 서평기사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내부 인원과 외부 인원 사이에 역할 분담이 있어야 하고, 서평담당기자가 전문화되어야 하며, 서평작성에 충분한 시간이 주어 져야 한다. 말하자면 교양서나 속보성을 요하는 도서의 서평기사는 담당기자가 작성하고, 보다 전문적인 학술서나 특수한 분야의 도서, 서평의 권위와 심층적인 분석을 필요로 하는 서평기사는 외부 전문가에게 위촉하여 시간의 여유를 갖고 충분히 분석적으로 작성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고정칼럼니스트가 작성하는 서평에서 일반적으로 속보성은 중요하지 않은 요소이며, 실제 발행년도가 몇 개월이나 몇 년이 지난 도서의 서평들을 신문매체에서도 곧잘 찾아보게 된다.

서평자의 실명을 기술하는 것은 서평의 공정성과 책임, 권위, 건전한 토론을 위해 필수 불가결하다. 동아, 한국, 매일신문에 있어서 서평지면의 편집 상 다소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긴 하나, 서평자의 이름을 확인할 수 없는 예가 적지 않다. 동아일보에서 29건, 한국일보에서 38건, 매일신문에서 49건의 서평이 그러하다.

상대적으로 전체 서평건수가 적은 매일신문에서 그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데, 기사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소스를 밝힐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신문서평은 서평담당기자가 저널리스트로서 성장하기 위한 과정에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책에 대한 애정과 서평활동에 대한 사명감을 가진 전문가로서 접근할 때 그 질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V. 결 언

동아일보, 한국일보, 매일신문을 통해 살펴본 신문서평의 성격과 경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평은 원칙적으로 매주 일정한 요일에 지정된 지면에 게재되며, 문학이나 문화, 학술, 종교지면을 통해 해당 주제의 문헌서평이 실리기도 한다. 신문별 서평건수는 전문지면의 양에 따라 차이가 있다.

둘째, 서평전문지면의 양은 발행지면의 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해당 지면은 매주 수집된 신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형식과 크기의 기사로 구성되고 있다.

셋째, 서평도서의 서지정보는 일관성 있게 기술되고 있지 못하며, 신문에 따라 기술방식에 다소 차이가 있다. 서지정보 가운데 역자명의 누락이 두드러진다.

넷째, 신문서평은 여유있는 지면을 통해 서평도서의 표지, 삽도, 저작자 및 서평자의 인물사진, 그래픽 등 다양한 일러스트레이션을 실고 있다. 서평전문지면이 많은 중앙지의 편집레이아웃 기법이 지방지에 비해 보다 우수한 편이다.

다섯째, 서평도서의 주제는 일반적으로 문학과 사회과학, 역사, 철학, 예술에 집중되어 있다. 신문서평의 주제별 비중은 주제별 출판종수 보다는 독자의 독서선호도에 더 큰 영향을 받으며, 실제적으로 한국문학, 경제학, 사회학분야의 교양서 서평비율이 높다.

여섯째, 번역서의 서평비율은 국내 저작의 서평비율 보다 높으며, 특히 동아일보에 있어서 번역서의 비중은 전체 서평건수의 절반이상을 차지한다. 해외신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서평을 게재하는 신문은 동아일보에 한정되어 있다.

일곱째, 매일신문은 중앙지와 달리 지역과 관련된 도서를 우선적으로 서평하고 있으며, 타 신문에 비해 학술서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지역의 저자층이 지역의 대학교수들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매일신문의 경우 제한된 지면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서평의 형식 상 다수의 저작을 함께 다루는 일괄서평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여덟째, 신문별로 서평이 많이 게재된 출판사 순위는 다소 차이가 있다. 상위 27개의 출판사가 전체 서평건수의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은 주로 교양 및 문학서를 전문적으로 발행하는 출판사이다. 자사의 출판물, 또는 고정칼럼니스트의 저작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거나, 동일 지면에 동일 도서의 서평기사와 광고를 함께 실는 일은 신문서평에서 지양되어야 한다.

아홉째, 신문서평은 일반적으로 발행일자로부터 1주일을 전후해 서평이 게재되기 때문에 속보성이 있다고 정의할 수 있다. 신문별 타임래그는 일반적으로 서평지면이 발행되는 날짜의 차이만큼 격차를 보이고 있다.

열째, 신문서평의 작성은 소수의 서평담당기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결국 서

평의 질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동아일보의 경우 상대적으로 외부 서평자의 서평비율이 높고, 인적 구성도 다양하다. 외부 서평자는 속보성과는 무관하게 양서를 선택하여 신중히 서평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의 신문서평은 보다 외부 인적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권위 있는 서평을 지면에 싣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신문별로 특징 있는 서평기사가 되도록 관심 주제 및 유형을 한정하고, 서평담당기자를 더욱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 권위 있는 서평지면은 서평매체로서 신문의 기능을 더욱 의미 있게 하며, 신문의 공익성을 증진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상호, “문헌비평을 위한 서평의 분석적 고찰”, 《한국비블리아》 7집(1994). pp. 247-262.
- 김상호, “문헌의 형태에 관한 비평기사분석”, 《서지학연구》 22집(2001). pp. 97-122.
- 김상호, “한국의 서지학 연구동향”. 《서지학연구》 8집(1992). pp. 353-362.
- 한국출판연구소, 『2000국민독서실태조사』. 서울 : 한국출판연구소, 2000.
- Coser, Lewis A., *Books : the culture and commerce of publishing*.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2.
- Encyclopedia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 25*. New York : Marcel Dekker, 1978.
- Haines, Helen E., *Living with Books*.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0.
- Kammerman, Sylvia E., *Book Reviewing*. Boston : The Writer, 1978.
- Merritt, Leroy C., *Reviews in Library Book Selection*. Detroit : Wayne State University Press, 1958.